

간호대학생의 그릿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Grit in Nursing Student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원효진*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Hyo-jin Won*

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Culture University, Cheonan 31065, Korea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Grit)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C 지역의 간호학과 대학생 1-2학년 총 26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방법,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 하였다. 그 결과, 그릿의 하위 영역 중 흥미 유지 3.27점(± 0.71), 노력 지속 3.35점(± 0.69)이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 영역 중 학습계획 3.43점(± 0.56), 학습 실행 3.52점(± 0.67), 학습 평가 3.47점(0.71)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 중 학문적 적응 3.43점(± 0.66), 사회적 적응 3.36점(± 0.78), 정서적 적응 3.38점(± 0.72), 신체적 적응 3.35점(± 0.80), 대학에 대한 애착 3.40점(± 0.64)이었다. 간호대학생의 그릿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릿의 하부 영역은 흥미 유지 ($t=2.423, p<.05$), 노력 지속 ($t=3.761, p<.001$)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0.2%이었다 ($F=23.609, p<.001$). 간호대학생의 그릿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그릿의 하부 영역은 흥미 유지($t=3.112, p<.001$), 노력 지속($t=3.930,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3.2%이었다($F=30.608, p<.001$).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그릿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 대학생활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이를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analyze the effects of grit in nursing student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Data was collected from 260 nursing students including first and second-year nursing students in Region C University. The data was analyzed to find relationships among gri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e subdomains of grit in which grit in nursing students affecte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ere consistency of interest ($t=2.423, p<.05$) and perseverance of effort ($t=3.761, p<.001$). The explanation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was 40.2%, which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F=23.609, p<.001$). The subdomains of grit in which grit in nursing students affected adjustment to college life were the consistency of interest ($t=3.112, p<.001$) and perseverance of effort ($t=3.930, p<.001$). The explanation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was 43.2%, which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F=30.608, p<.001$). These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individual nursing students' gri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llege-life adjustment.

<http://dx.doi.org/10.14702/JPEE.2023.08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6 March 2023; Revised 11 April 2023

Accepted 14 April 2023

*Corresponding Author

E-mail: hjwon@bscu.ac.kr

Key Words: College life adjustment, Grit, Nursing studen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 서론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은 학업, 인간관계 및 심리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에 적절히 대처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대학생 시기에 겪는 가치관 혼란, 대인관계 갈등, 경제적 어려움, 진로 고민, 취업 준비 등에 직면했을 때 계속하고자 하는 경향성과 노력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그릿으로 보았다[1]. 그릿은 열정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정의된다[2]. 그 하위 요소로 ‘자기 동기력’과 ‘자기 조절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기 동기력’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자기 조절력’은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그릿과 유사한 속성으로 ‘자기 통제’가 있는데, 자기 통제는 지금 당장의 목표와 미래의 목표가 충돌을 일으킬 때, 좀 더 가치 있는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주의, 정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릿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상위 목표를 수년에 걸쳐 끈질기게 추구하는 능력을 말한다[3]. 대학생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적고, 대학생활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4], 주관적 안녕감과 소속감이 높고[5], 심리적 소진이 낮다고 하였다[6].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간호교육에서 필요성이 강조되어 온 개념으로,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학습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학습과정에 심리적인 조절과 통제가 가능한 학습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7]. 이는 학생의 선택, 자신감, 동기 및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자율학습을 가능하게 한다[8].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성장마인드셋[9], 비판적 사고 능력, 학습동기, 문제해결능력[10] 등이 있으며, 그릿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우 구체적인 목표와 공부 계획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며 꾸준히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끈기가 생기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11]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란 실무역량을 갖춘 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의료계의 상황 속에서 단순히 지식과 기술의 습득만이 아닌 간호 전문 인력의 역량과 관계가 있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12]. 대학생활적응은 학업 성취는 물론 관계 형성 등 대학과 학과의 환경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13].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12], 자기주도 학습능력, 우울감[14] 등이

있으며, 그릿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 연구[15]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있었으나, 그릿의 어떠한 하위 요인들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1-2학년을 대상으로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그릿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대상자는 C시에 위치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5월이며 온라인 url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 중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변수 2개인 경우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으로 107명의 표본수가 산정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263명 이었고, 한 문항에 이중 응답을 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최종 260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C.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만족도를 포함하였다.

2) 그릿

그릿(Grit)은 역경이나 실패가 생겨도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려는 성격 특성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인내와 열정을 말한다 [16]. Duckworth, Peterson, Matthews와 Kelly[16]가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에 대해 이수란[17]이 한국 실정에 알맞게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흥미 유지 6문항, 노력 지속 6문항이다. 두 하위 요인의 총합이 높을수록 그릿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이수란[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01 이었으며, 하위 요인인 흥미 유지는 .812, 노력 지속은 .793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53 이었으며, 하위 요인인 흥미 유지는 .875, 노력 지속은 .841 이었다.

3)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8]. 한국교육개발원[18]에서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습계획 능력 요소 20문항, 학습 실행의 능력 요소 15문항, 학습 평가 능력 요소 10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석재 등[18]의 연구에서 하위 요인 각각의 신뢰도는 학습계획 능력 요소 .89, 학습 실행 능력 요소 .78, 학습 평가 능력 요소 .69 이었으며,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3 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학습계획 능력 요소 .904, 학습 실행 능력 요소 .899, 학습 평가 능력 요소 .880 이었으며,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92 이었다.

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 학업, 대학 환경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13].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3]가 개발한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이윤정[19]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총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윤정[1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2 이었다.

D.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의 빈도 분석하였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그릿, 자기주도 학습능력,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자기주도 학습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와 ANOVA 하였다. 대상자의 그림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 하였다.

III.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이 31명(11.9%), 여학생은 229명 (88.1%)였으며, 20세 이하는 148명(56.9%), 21세 이상은 112명(43.1%) 이었다. 1학년이 136명(52.3%), 2학년이 124명(47.7%)이었으며, 전공만족도가 ‘만족’은 112명 (43.1%), ‘보통이다’가 97명(37.3%), ‘불만족’이 51명 (19.6%)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31	11.9
	Female	229	88.1
Age(year)	≤20	148	56.9
	≥21	112	43.1
Grade	1st	136	52.3
	2nd	124	47.7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112	43.1
	Moderated	97	37.3
	Unsatisfied	51	19.6

표 2.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대학생활적응

Table 2. Gri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Variables	Range	M(SD)
Grit		3.32(0.67)
Consistency of interest	1-5	3.27(0.71)
Perseverance of effort	1-5	3.35(0.69)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45(0.81)
Learning plan	1-5	3.43(0.56)
Learning practice	1-5	3.52(0.67)
Learning evaluation	1-5	3.47(0.71)
College life adjustment		3.37(0.57)
Academic adjustment	1-5	3.43(0.66)
Social adjustment	1-5	3.36(0.78)
Emotional adjustment	1-5	3.38(0.72)
Physical adjustment	1-5	3.35(0.80)
Attachment to college	1-5	3.40(0.64)

2)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대학생활적응

그릿의 하위 영역 중 흥미 유지는 3.27점(±0.71), 노력 지속은 3.35점(±0.69)이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 영역 중 학습 계획은 3.43점(±0.56), 학습 실행은 3.52점(±0.67), 학습 평가 3.47점(0.71)였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 중 학문적 적응은 3.43점(±0.66), 사회적 적응은 3.36점(±0.78), 정서적 적응은 3.38점(±0.72), 신체적 적응은 3.35점(±0.80), 대학에 대한 애착은 3.40점(±0.64) 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자기주도 학습능력,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은 성별(t=-0.27, p=.70), 연령(t=-0.41, p=.56), 학년(t=-0.49, p=.53), 전공만족도(t=1.84, p=.06)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성별(t=-0.33, p=.68), 연령(t=-0.58, p=.48), 학년(t=-0.50, p=.51), 전공만족도(t=1.93, p=.05)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성별(t=-0.69, p=.23), 연령(t=-0.64, p=.65), 학년(t=-0.66, p=.41)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만족도(t=2.03, p=.04)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그릿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릿의 하부 영역은 흥미 유지(t=2.423, p<.05), 노력 지속(t=3.761,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2%의 설명력이 있었다(F=23.609, p<.001).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자기주도 학습능력, 대학 생활적응

Table 3. Gri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Gri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ollege life adjustment	
		M (SD)	t/F (p)	M (SD)	t/F (p)	M (SD)	t/F (p)
Sex	Male	3.32	-.27 (.70)	3.43 (.50)	-.33 (.68)	3.34 (.44)	-.69 (.23)
	Female	3.33		3.47 (.46)		3.40 (.37)	
Age(year)	≤20	3.31	-.41 (.56)	3.41 (.29)	-.58 (.48)	3.33 (.41)	-.64 (.65)
	≥21	3.34		3.48 (.64)		3.39 (.53)	
Grade	1st	3.30	-.49 (.53)	3.42 (.53)	-.50 (.51)	3.33 (.39)	-.66 (.41)
	2nd	3.35		3.48 (.40)		3.40 (.23)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3.40	1.84 (.06)	3.51 (.28)	1.93 (.05)	3.42 (.33)	2.03 (.04)
	Moderated	3.33		3.44 (.44)		3.37 (.54)	
	Unsatisfied	3.21		3.39 (.78)		3.32 (.47)	

표 4. 그릿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Table 4. Effect of Grit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Variable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ollege life adjustment	
	Consistency of interest	Perseverance of effort	Consistency of interest	Perseverance of effort
β	.240	.359	.308	.372
t	2.423	3.761	3.112	3.930
p	.016	.000	.000	.000
R ²	.402		.432	
F	23.609***		30.608***	

는 그릿의 하부 영역은 흥미 유지(t=3.112, p<.001), 노력 지속(t=3.930,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3.2%의 설명력이 있었다(F=30.608,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Grit)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릿은 5점 만점에 3.32점으로 하위 영역 중 흥미 유지는

3.27점, 노력 지속은 3.35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그림에 관한 연구에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남혜리[14]의 연구에서 그림은 3.17점, 박인숙과 안성식[12]의 연구에서 3.21점, 이소영과 김지영[20]의 연구에서 2.94점, 이승주와 박주영[15]의 연구에서 3.31점 이었다. 다른 연구에 비해 본 연구 대상의 그림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은 1학년과 2학년이 포함되었으나, 남혜리[14]와 박인숙과 안성식[12] 연구의 대상은 1학년만 포함되었고, 이소영과 김지영[20]의 연구 대상은 1-4학년 전체 학년이 포함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3.45점으로 하위 영역 중 학습 계획은 3.43점, 학습 실행은 3.52점, 학습 평가는 3.47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과정관리, 학습결과관리,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 자원 이용 관리, 학습환경조성의 7개 영역, 5점 척도의 이소영과 김지영[20]의 도구를 사용한 남혜리[14]의 연구에서 3.46점, 이소영과 김지영[20]의 연구에서 3.30점 이었다.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남혜리[14]의 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1-4학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소영과 김지영[20]의 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하위 영역 중 학문적 적응은 3.43점, 사회적 적응은 3.36점, 정서적 적응은 3.38점, 신체적 적응은 3.35, 대학에 대한 애착은 3.40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대인관계, 진로 준비, 개인 심리, 학업 활동의 4개 영역, 5점 척도의 박인숙과 안성식[12]의 도구로 조사한 남혜리[14]의 연구에서는 3.46점, 대인관계, 전공 만족, 전공 수월성, 대처 역량, 취업 준비, 학업 충실도의 6개 항목, 5점 척도의 박신영[21]의 도구를 사용한 최윤하와 채민정[22]의 연구에서 3.32점, 이승주와 박주영[15]의 연구에서 3.37점 이었다. 이승주와 박주영[15]의 연구 대상은 3, 4학년만 포함되었으며, 최윤하와 채민정[22] 연구의 대상에서 학년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교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제한이 있었으나, 연구 대상자의 학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년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의 하위 요인으로는 노력 지속, 흥미 유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0.2%이었다. 이는 이소영과 김지영[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남혜리[14]의 연구 결과에서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olter와 Hussain[23]의 연구에서도 그림의 구성요소인 노력 지속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 요인인 가치, 자기효능감, 인지, 메타인지, 동

기부여, 시간관리전략, 환경 관리 전략, 지연 처리를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또한 흥미 유지도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 요인인 환경 관리 전략 및 지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인 것은 물론, 대학생은 중·고등학교 시기와 달리 자신의 학습 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진로를 계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시도해야 한다[24].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력 지속, 흥미 유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3.2%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승주와 박주영[15]의 연구와 Slick과 Lee[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림은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투지,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 도전을 통해 어려운 일을 성취해 내는 열정과 인내를 갖는 결과이다[25]. Tough[26]는 그림을 성공적 대학생활의 결정 요인으로서 강조하며, 교육 과정과 수업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교육부 역시 그림을 21세기의 핵심역량으로 지목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27]. 대학생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혼란에 독립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림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림은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과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으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대학을 확대시키고 질적 연구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그림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그림, 자기주도 학습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의 하위 요인으로는 흥미 유지와 노력 지속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그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그림 형성을 위

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S. B. Lee, E. H. Bae, Y. W. Sohn, and S. R. Lee, "Grit as a buffer against negative feedback: The effect of grit on emotional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30, no. 3, pp. 25-45, 2016.
- [2] J. H. Kim, *Grit*, Gyeonggido: Sam and Parkers, 2013.
- [3] A. L. Duckworth and J. J. Gross,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23, no. 5, pp. 319-325, 2014.
- [4] S. N. Slick and C. S. Lee, "The relative levels of gri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otential dropping-ou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8, pp. 61-66, 2014.
- [5] N. A. Bowman, P. L. Hill, N. Denson, and R. Bronkema, "Keep on truckin' or stay the course? Exploring grit dimensions as differential predictors of educational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intentions," *Social Psychology and Personality Science*, vol. 6, no. 6, pp. 639-645, 2015.
- [6] A. Salles, G. L. Cohen, and C. M. Mueller,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resident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vol. 207, no. 2, pp. 251-254, 2014.
- [7] Y. I.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ag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atisfaction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Ph. 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Korea, 2017.
- [8] E. O'Shea,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e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3, no. 1, pp. 62-70, 2003.
- [9] S. Y. Lee and J. Y. Kim, "Growth mindset,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onlin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2, pp. 567-578, 2021.
- [10] M. J. Sim and H. S. Oh,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6, pp. 328-337, 2012.
- [11] J. I. Park, "Development and effect of the grit promotion program for adolescents," Ph. D.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Korea, 2021.
- [12] I. S. Park and S. S. Ahn,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grit of new students of nursing college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vol. 13, no. 4, pp. 1-12, 2019.
- [13]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pp. 179-189, 1984.
- [14] H. R. Nam, "The effects of gri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depression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vol. 8, no. 1, pp. 99-103, 2023.
- [15] S. J. Lee and J. Y. Park,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2, pp. 269-276, 2018.
- [16]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and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2, no. 6, pp. 1087-1101, 2007.
- [17] S. R. Lee, "Effects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2015.
- [18] S. J. Lee, Y. K. Jang, H. A. Lee, and K. E. Park,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03.
- [19]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1999.
- [20] S. Y. Lee and J. Y. Kim, "Growth mindset,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onlin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2, pp. 567-578, 2021.
- [21] S.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Ph. D.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Korea, 2017.
- [22] Y. H. Choi and M. J. Chae,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

- 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8, pp. 419-432, 2018.
- [23] C. Wolters and M. Hussain, "Investigating grit and its relations with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Metacognition Learning*, vol. 10, no. 3, pp. 1-19, 2014.
- [24] J. M. Lee and G. J. Lee, "A study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5, no. 3, pp. 133-153, 2017.
- [25] L. K. Thaler and R. Koval, *Grit to Great: How Perseverance, Passion, and Pluck Take You from Ordinary to Extraordinary*, Crown Business, 2015.
- [26] P. Tough, *How Children Succeed: Grit, Curiosity, and the Hidden Power of Character*, New York, NY: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2.
- [27] N. Shechtman, A. H. DeBarger, C. Dornisife, S. Rosier, and L. Yarnall, *Promoting Grit, Tenacity, and Perseverance: Critical Factors for Success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2013.



원 호 진 (Hyo-jin Won) _종신회원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박사 (간호학)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조직, 간호교육